

B-4. 결합조직 이식술을 동반한 발치와 보존술

류지선*, 김유강, 김옥수, 김영준, 정연주
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, 전남대학교 치의학 연구소,
2단계 BK21 project

연구배경

치아 발거 이후 치조골의 경조직과 연조직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. 이러한 현상은 치아 발거 후 첫 6개월 동안 크게 일어난다. 이는 수복시 비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발거 이후 임플란트 식립시 충분한 골부피를 얻을 수 없게 된다. 그러므로 치아 발거 후 치조제를 보존하는 것은 치조제 증강술의 필요를 없애거나 감소시켜 줄 수 있다.

치아 발거에 동반되는 치조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발거된 부위를 완전한 연조직 폐쇄를 위해 피관을 거상하거나(Borghetti & Glis 2000) 발거된 부위에 결합조직이식편을 위치시키는 방법(Nevins & Mellonig 1998), 골이식(Becker et al. 1994), 차폐막을 사용하는 방법(Lokovic et al. 1997) 등이 제안되었다.

Nevins와 Mellonig에 의하면 자가 연조직 이식으로 발치와를 폐쇄시키는 것은 치조제 형태를 보존해 줄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식립시에도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.(Landsberg 1997, Bianchi et al. 2003)

이에 본 증례에서는 치아 발거 후 결합조직 이식술을 동반한 발치와 보존술의 증례들을 보고하고자 한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전 상악 전치부에 다수 치아 발거가 필요한 경우, 상악 대구치의 급성 치주농양으로 발거가 필요한 경우와 상악 소구치의 잔존 치근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전 잔존 치근을 발거한 경우 결합조직이식술을 동반한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하였다.

연구결과

한 증례에서만 이식된 조직의 피사가 관찰되었고 치아 발거 후 임상적으로 연조직의 변화가 적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추적시 치조제의 높이와 폭이 유지되었다.

결론

결합조직을 동반한 발치와 보존술은 치조제의 높이와 폭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며 치아 발거 후 보철적인 수복이나 임플란트 식립이 예상되는 부위에서 더욱 유용하리라 사료된다.